

2011. 4. 18 제261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1. 4. 18 제261호

산업 · 경제

1.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추진 (미국 시카고市)
 2. 해외 관광객을 위해 국가별 관광업소 지정 (영국 리버풀市)
 3. ‘글로벌 기업가 대회’ 개최도시로 선정 (영국 리버풀市)
- (토막기사) 응용과학 및 공학 분야 우수 연구기관 유치 추진 (뉴욕)

건강 · 복지

4. 아동복지서비스 수정계획 발표 (영국 버밍엄市)
 5. 시민의 건강증진 활동 지원 (일본 오사카市)
- (토막기사) 미취업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 지원 (도쿄)
- (토막기사) ‘2014년의 유럽 스포츠수도’로 선정 (영국 카디프市)
- (토막기사) 청소년 대상 공공서비스 강화 추진 (영국 리버풀市)

행정 · 재정

- (토막기사)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불평등 완화 추진 (영국 리버풀市)

도시환경

6. 역사 건축물과 오래된 건물을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개조 (독일)
(토막기사)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제고, 에너지 절약 전략을 담은
‘에너지계획안’ 발표 (베를린)

도시교통

7. 시카고-세인트루이스 간 고속철도 건설 (미국 일리노이주)
8. 오토바이업체와 함께 안전운행 대책 수립 추진 (런던)
9. 임대자전거 운영방식 개선 및 공공교통과의 통합 추진 (베를린)

도시계획 · 주택

10. 워터프런트 종합계획 ‘비전 2020’ 발표 (뉴욕)
 11. 재개발되는 고층 호텔과 오피스빌딩 외벽에 디지털 광고 허용 (로스
앤젤레스)
 12. 지속가능한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해 ‘아파트 재생 환경 정비사업’
실시 (일본)
-

산 업 · 경 제

1.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추진 (미국 시카고市)

○ 미국 시카고市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미국에서 가장 중국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 중임. 우선 시카고 시장은 지역 기업가와 함께 2010년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 톈진, 항저우, 충칭, 홍콩을 방문해 중국 관료들을 만남. 市는 오래 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진행해 왔음.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2011년 1월 미국 방문 시 워싱턴 DC와 시카고를 방문해 돈독한 관계를 보여줌.

- 市는 30초 TV 광고를 만들 예정인데 시카고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교류도시이며 미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할 계획임. 또한 市는 중국 투자자에게 시카고 내의 투자 기회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 미국 지사 설립과 함께 재생에너지(풍력발전), 금융 및 물류, 식음료품 가공, 정보·통신 분야 투자를 적극 권장함.

· 市는 미국시장 진출 시 판매망 지원, 고급인력 제공 등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내 다른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음을 강조함.

- 2011년 6월 상하이에 ‘시카고-중국 경제발전센터’가 개관될 예정임. 이를 계기로 시카고와 중국은 상호 경제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함. 상호교류 실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 ① 시카고와 중국 상하이, 선양은 25년 전에 자매결연을 하고 문

화, 음악,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함. ② 상하이 엑스포에 시카고의 음악, 예술, 음식, 스포츠를 알리기 위해 참여함. ③ 2007년에는 중국과 미국 주정부의 정상회담을 시카고市가 개최함. ④ 시카고는 중국의 가장 비중 있는 무역 거래도시로 2010년에는 360억 달러(약 39조 원) 수입, 40억 달러(약 4조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함. ⑤ 시카고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300여개가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모토롤라, 보잉이 대표 기업임. ⑥ 시카고에 중국 주자학 및 중국어 교육을 위한 센터 건립을 추진함. ⑦ 세계적 풍력회사인 'Goldwind' 미국 본부를 시카고 다운타운에 설립하고 주변 지역에 투자를 지속함. ⑧ 중국 철강기업이 미국 중서부지역에 투자할 계획임. ⑨ 캐세이퍼시픽 항공사가 시카고-홍콩 직항로를 개설함. ⑩ 'Wanxiang America' 태양집열판 조립공장을 일리노이州에 설립함.

- 市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 결과 중국은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시카고를 선정하고 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음.

(http://mayor.cityofchicago.org/etc/medialib/mayor/press_room1/press_releases/press_release_pdfs/2011.Par.82008.File.pdf0317%20china%20campaign%20final%20release.pdf)
(www.china.org.cn/world/2011-04/12/content_22340597.htm)

2. 해외 관광객을 위해 국가별 관광업소 지정 (영국 리버풀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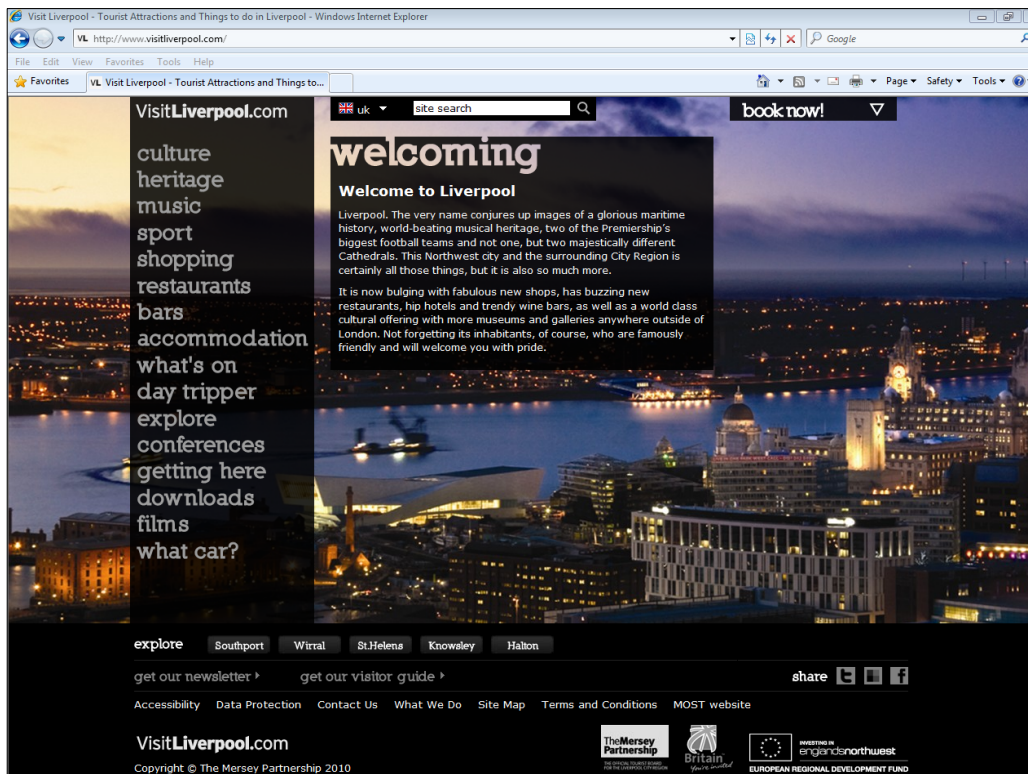
○ 영국 리버풀 광역권의 경제발전과 관광촉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정부 간 협력체인 머지 파트너십(The Mersey Partnership)은 리버풀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도록 국가별로 특화된 환영 프로그램을 마련함. 국가별 접객업소를 지정하고 국가별 언어와 문화를 집중 교육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비틀즈 관련 명소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대상이 되는 해외 관광객 접객업소는 머지 파트너십이 마련한 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평가를 받아 해당 국가의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관광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숙박시설뿐 아니라 여행 가이드, 각종 투어 운영, 택시 등 다양한 관광업종 종사자가 대상이 됨.

· 인증을 받은 업주는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여행알선 업체인 ‘Liverpool Tour Guide Service’와 ‘Pool of Life Tour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이 두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하고 인증 받은 관광업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프로그램은 훈련과 인증에 그치지 않고 개인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돋보임.

- 최근 외국어 관광가이드 서비스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학교, 유흥·스포츠 시설, 회의장, 유람선 운영회사, 여행사 등에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의 활약이 두드러짐. 이밖에도 유럽 축구클럽을 방문하는

테마여행도 늘어나면서 축구 지식에 대한 외국어 안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고, 리버풀 지역 기업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자를 위한 외국어 안내 등 전문 분야별 외국어 가이드에 대한 필요성도 커짐. 이와 같은 외국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함.



【머지 파트너십이 운영하는 리버풀 관광 안내 홈페이지(visitliverpool.com)】

- 머지 파트너십에서는 2011년 초에 신청자 접수를 받고 2월부터 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감. 자격은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하고 리버풀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며, 훈련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
- 또한 해외 관광객 현황과 관련 인력규모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외국어 전문가를 집중 육성할 전망이다. 특히 일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언어에 능통한 지원자를 찾고 있음.

(most.merseyside.org.uk/site/business-sectors/tour-guides/becoming-a-guide)

(www.merseyside.org.uk/displaypage.asp?page=31)

(www.visitliverpool.com/)

3. ‘글로벌 기업가 대회’ 개최도시로 선정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가 미국의 카우프만(Kauffman) 재단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글로벌 기업가 대회’의 2012년 개최도시로 선정됨. 리버풀의 비전, 경제발전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아랍에미리트, 칠레, 덴마크를 누르고 2012년 의장 도시 자격을 얻게 됨. 리버풀市는 유럽에서 최초로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글로벌 기업가, 저명 사상가·경제학자가 참석할 예정임. 2010년 상하이, 2009년 두바이, 2008년 캔자스시티에서 대회가 열렸음.

- 市는 이번 회의가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회이며 앞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증진해 기업의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과 공공이 긴밀히 협력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할 계획임. 2012년 회의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창조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임.

· 市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함. 이를 위해 카우프만 재단의 ‘글로벌 기업가 주간 운동’에 동

참해 도시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모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 운동은 혁신적인 개인과 조직이 중심이 된 대규모 운동으로 다음 세대의 기업가 양성을 위해 3만여 개의 이벤트와 활동을 펼침.

- 대회 참가자들은 전 세계에서 초청 받은 세계 지도자, 경제학자,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음.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주요 요소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파트너십 촉진과 활용을 통해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방안도 교육받게 됨.

(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5936)

응용과학 및 공학 분야 우수 연구기관 유치 추진 (뉴욕)

-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응용과학 및 공학 부문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기로 하고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계획서를 접수하기 시작함.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개발 수단을 모색하는 시는 향후 들어서게 될 연구기관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함. 시는 미래 산업의 중심이 응용과학 및 공학 부문의 신기술이 될 것이며 이러한 신기술이 세계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내다봄.
- 신기술 개발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유지(市有地)에 연구기관을 유치할 예정임. 맨해튼의 루즈벨트 아일랜드, 거버너스 아일랜드, 스테이트 아일랜드 내 부지 등 3개 시유지가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음. 시는 제안서 접수는 2011년 여름까지, 대상기관 선정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지금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해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영국 등의 유명 대학과 부설 연구기관임.

(www.nyc.gov)

건 강 · 복 지

4. 아동복지서비스 수정계획 발표 (영국 버밍엄市)

- 영국 버밍엄市는 아동복지서비스 정책방향의 변화를 담은 보고서를 확정해 향후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임. 새로운 아동서비스 계획은 일선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관리직원을 없애고 대대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함.
- 이 보고서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정책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음. 市는 기존 정책이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학습과 교육 성취도 향상, 건강불평등 감소 등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음을 강조함.
- 市는 현재 28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2011년 1월 통계에 따르면 약 87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빈곤상황에 처해 있음. 2010년에 6개월간 1393명의 어린이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12월에는 1408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별 구제서비스가 지원됨.
- 市는 2012년 예산을 2억 1200만 파운드(약 3760억 원) 삭감하고 2014년까지 3억 800만 파운드(약 5460억 원)를 절감해야 하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예산도 6830만 파운드(약 1200억 원) 정도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市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과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임. 또한 어린이가 보육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게 교육받고 양육되도록 통합 관리와 조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이번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족지원팀 설립: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16개의 팀을 설립함.
 - 아동센터 및 지역사회 어린이집 조정: 75개 아동센터를 16개 지역 아동서비스센터로 통합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직원을 감축함.
 - 아동복지서비스 조정: 지원이 시급하고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회복지사에게 더욱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심각한 장애 및 특수교육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사전 예방 및 조기치료와 지원방안을 도시 전역에 제공함.
 - 학교교육 관련 사회적 대안학교 서비스 활성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대안학교를 활성화해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

(<http://birminghamnewsroom.com/2011/03/cabinet-approves-report-outlining-future-for-childrens-services/>)

5. 시민의 건강증진 활동 지원 (일본 오사카市)

○ 일본 오사카市에서는 2001년 ‘시민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활력 있는 마을, 건강도시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건강증진계획인 ‘건강한 오사카 21’을 수립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을 쏟고 있음. 2001년에 실시한 건강지표 분석에 따르면 흡연율, 비만, 운동 참가율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市에서는 건강증진 활동사업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시민단체가 실시하는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타 기관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區 단위로 활동하고 다음의 조건을 전부 만족시켜야 함. ① 단체 활동에 대한 회칙이 있고 건강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여야 하고, ② 오사카 시민으로 구성되고 區 전역에서 활동해야 하며, ③ 건강증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함.

· 1개 단체당 13만 6000엔(약 180만 원) 한도로 지원대상 경비의 1/2 이내로 경비를 지원함. 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주로 강의료,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도서 구입비, 통신·교통비, 보험료, 위탁료, 회비·참가비 등을 지원함. 또한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함. 올해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 예산서, 기관의 관련 규정, 임원 명단을 신청시 제출해야 함.

(www.city.osaka.lg.jp/kenkofukushi/page/0000117562.html)

미취업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 지원 (도쿄)

- 도쿄都는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으로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교육(1개월)을 이수한 뒤 ‘소개 예정 파견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 취업 체험(3개월)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긴급 취업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함. 소개 예정 파견제도란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파견을 받은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파견 종료 후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함.
- 都는 전체 4개월이 소요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연간 3기로 나누어 총 75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 및 체험기간 중에 임금 및 교통비를 지급함. 이 사업은 都가 위탁한 2개 사업자가 운영하며 제1기 교육은 5~9월에 시행됨. 이 사업은 都의 비전계획인 ‘10년 후 도쿄’의 실행 프로그램 중 하나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11/04/22/141100.htm)

‘2014년의 유럽 스포츠수도’로 선정 (영국 카디프市)

- 영국 카디프市는 유럽 스포츠수도협회가 스포츠 증진에 힘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도시에 수여하는 ‘유럽 스포츠수도상’을 수상함. 심사위원단은 카디프의 국제 화이트워터 놀이시설, 종합운동장, 밀레니엄 스타디움 등을 둘러보고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함. 또한 카디프가 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기반시설 확충, 스포츠이벤트 개최, 시민의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함.
- 그동안 市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국내 및 국제 경기(크리켓 월드컵, 럭비 월드컵, 축구 FA컵 결승전 등)를 개최해왔음.

특히 수백 명의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해 학교, 스포츠클럽, 지역사회에 배치하고 3만 5000여 회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카디프’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기업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창조적인 스포츠 접근방식을 시행하고 있음.

(www.cardiff.gov.uk/content.asp?nav=2874&parent_directory_id=2865&id=11465&Language=)

청소년 대상 공공서비스 강화 추진 (영국 리버풀市)

- 매년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를 30여 개의 청소년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영국 리버풀市는 청소년 대상 공공서비스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임. 2010년 12월부터 4개월간 600만 파운드(약 106억 원)를 들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공공서비스에 대한 결정은 중앙에서보다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보고서에서는 도시 전역에 ‘청소년 활동지역’을 만들어 금/토요일 저녁이나 방학 때 청소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어디에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청소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권고함.
- 市는 자선 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함께 거리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양한 분야의 개인과 그룹,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임. 예산 배정도 기존의 30(빈곤층) : 70(일반 주민)에서 50 : 50으로 조정해 빈곤계층 밀집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할 계획임.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서비스 담당 실무자 역할을 시민단체가 수행하게 하고 市는 이들에게 교육과 자기계발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6032)

행정 · 재정

빈곤문제 해결과 사회불평등 완화 추진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 공정사회위원회가 2011년 4월 공식 출범해 빈곤층 및 빈곤상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이번 조사에서는 빈곤의 주요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불평등 측면에서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 퇴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할 방침임.
- 위원회는 市, 노동조합, 대학, 기업, 시민단체, 주택연합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빈곤 타파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시민사회와 기업도 예산 삭감으로 재정운용의 폭이 좁아진 市를 도와 심각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계획임. 최근에 발표된 복합적 빈곤 통계지수에 의하면 리버풀은 영국에서 가장 빈곤층 비율(소득 하위 10% 인구비율)이 높은 도시임.

(www.liverpool.gov.uk/news/details.aspx?id=196092)

도시 환경

6. 역사 건축물과 오래된 건물을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개조 (독일)

- 독일 연방정부는 도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1991년부터 옛 동독 지역의 178개 도시와 옛 서독지역의 118개 도시를 지원해왔음. 에너지의 40%를 건물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도시는 거대한 에너지 소비공간임. 이

에 교통건설도시발전부는 2011년 에너지효율적인 건물 신축 및 개조 계획 추진을 위해 총 9억 3600만 유로(약 1조 4800억 원)의 지원금을 활용하기로 함. 이 중 5억 유로(약 7900억 원)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개조하는 사업에 활용됨. 건물 개축 정책은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줌.

- 문화유산과 오래된 도시지구를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유럽 도시를 지향하자는 라이프치히 헌장에 근거를 두고 있음. 에너지절약형 건물로의 개조는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 건물의 새로운 과제임. 또한 도심지역은 주거, 근로, 문화와 여가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장소로 발전해야 함.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오래된 기존 건물 개축: 에너지효율적인 신축 건물이 광범위하게 건설되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의 가장 큰 잠재력은 기존 건물에 있음. 기후 보호와 에너지 절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개축률이 높아져야 함.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건물의 개축 시 기존 건물의 본질과 외형은 잘 보존되어야만 함. 에너지효율과 문화재 보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규정 등을 활용함.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개축 시 건물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규정이 개선되어야 함.
 - 에너지 증명서 발급·운영: 2008년 7월부터 건물을 매매하고 임대할 경우 에너지 증명서가 의무적이지만 예외도 있음. 난방이 되는 문화유산 보존 건물의 매입자나 임차인에게는 에너지 증명서를 주지 않아도 됨.
 - 문화유산 보존 건물을 에너지 절감형 건물로 개축: 연방 교통건설

도시발전부는 기존 건물을 에너지효율 건물로 개축하는 독일 에너지 에이전시의 시범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함. 이러한 지원으로 많은 건물이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개축되고 있고 일부 건물의 경우 개축을 통해 90%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었음. 시범 프로젝트는 건물주, 시공사, 계획가, 에너지 상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문화유산 현판 (출처: Georg Matzat - fotolia.com)】

(www.bmvbs.de/SharedDocs/DE/Artikel/SW/energetische-gebaeudesanierung-und-denkmalschutz.html)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제고, 에너지 절약 전략을 담은 ‘에너지계획안’ 발표 (베를린)

- 베를린시는 2011년 4월 경제기술여성국이 제출한 ‘에너지 콘셉트 2020 : 베를린을 위한 에너지’로 명명된 시 에너지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에너지계획안의 기본이념은 공급의 안전성과 경제성, 환경 및 사회보존임.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화석연료 고갈,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드러난 위험성과 계산 불가능한 수습비용에 대한 긴급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임.
- 에너지계획안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생산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략을 골자로 함. 우선 재생에너지 확보방안을 생물자원연료(Biomass), 지열발전, 태양열에너지 순으로 제시함. 에너지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① 시 외곽의 숲과 초지 · 강 · 호수의 생물자원 관리와 이용, ② 태양열집열판 설치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원, ③ 태양열 전력 생산 확대, ④ 주택건설사 · 상점 · 공장 · 교통기관 등과의 기후보호협약 체결, ⑤ 시 · 자치구의 에너지경영 개선, ⑥ 기후보호형 공공조달 확대, ⑦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개조 확대를 제안함.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가정, 공공서비스기관, 상점, 공장, 민간기업, 교통기관에서의 전력 소비량 저감방안(단열을 위한 주택 보수, 열병합 발전기 설치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을 제안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405,1255,339113.html)

도 시 교 통

7. 시카고-세인트루이스 간 고속철도 건설 (미국 일리노이주)

○ 미국 중부의 최대도시 시카고市와 중서부의 핵심도시 세인트루이스市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2011년 4월 5일 시작됨. 일리노이주는 경쟁력 있는 철도시스템을 갖춰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시카고는 미국 철도시스템 암트랙(Amtrack)의 중서부지역 거점 역할을 해왔고 광역통근철도망 메트라(Metra)가 발달해 있음.

-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4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도시를 잇는 전국적인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8140억 달러(약 887조 원)의 경기부양자금 중 80억 달러(약 8조 7000억 원)를 고속철도사업에 투입하기로 함. 당시 일리노이주는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은 12억 3000만 달러(약 1조 3400억 원)를 배정받음.

· 그런데 몇 개 주가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고속철도사업에 충당할 자금을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힘. 특히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선출된 위스콘신주와 오하이오주가 2010년 말 연방정부 지원금을 반납한 데 이어 2011년 3월에는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배정받았던 플로리다주도 사업 포기를 선언함.

· 3개 주가 반납한 지원금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14개 주에 배분되었는데 일리노이주는 4230만 달러(약 460억 원)를 추가로 배정받음. 일리노이주 내에서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

분함. 한 연방 하원의원은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선호하는 미국인의 특성상 투자효과도 의문이라고 밝힘. 반면 다른 연방 상원의원은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민-관 협력체제를 발전시키고 항공기 이용객에게 속도와 안전성을 겸비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음.

- 최대 시속 약 177km인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자동차로 5시간이 걸리는 시카고-세인트루이스 약 483km 구간을 약 3시간 30분 내로 운행하게 됨.

(Chicago Tribune, 2011. 3. 31)


8. 오토바이업체와 함께 안전운행 대책 수립 추진 (런던)

-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는 경찰청, 오토바이업체, 교통사고 관련 보험회사 관계자와 만나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함. 현재 런던 시내에서 이뤄지는 여정 중 오토바이나 스쿠터 비중은 1%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비율은 15%,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고 비율은 무려 22%에 달함. 따라서 차량이나 대중교통에 비해 소수인 오토바이 이용자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다수를 위한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업계 관계자와 함께 모색한다는 점이 특징임.

- 업계 관계자와 논의한 내용은 런던 최초로 수립되는 오토바이 안전 운행 대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임.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런던교통공사

와 경찰청 오토바이 전담반이 공조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데 민간기업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안전운행 대책은 2011년 중에 발표할 예정임.

- 오토바이 제작사인 두카티, 가와사키, 트라이엄프, 스즈키社は 런던경찰청과 교통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안전운행 훈련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시민이 참여하도록 홍보함. 이 훈련은 런던 시내 교통상황에 맞춰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요령을 실전 경험을 통해 알려줌.
- 그동안 오토바이 관련 도로 안전문제는 런던경찰청이 주도하고 런던교통공사가 재원을 일부 지원하는 오토바이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음. 14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안전운행 훈련과 오토바이 속도 위반 단속을 담당함. 2010년의 경우 이 훈련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에는 현재까지 800명이 훈련 신청을 한 상태임.
- 이번 모임에서는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오토바이 이용자 뿐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을 상대로 도로안전 캠페인을 함께 펼쳐나가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안도 검토함. 또한 市는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도보 등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다양한 행동유형을 반영하는 도로안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정책방향을 밝힘. 아울러 시범사업으로 버스 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지 조사하기로 함.



What is BikeSafe-London?

In London, motorcyclists represent a disproportionately large number of casualties – while representing under 2% of road traffic they account for nearly 24% of deaths and serious injuries.

BikeSafe-London was launched in April 2003 as a result of a partnership between the Metropolitan Police Service, the City of London Police and Transport for London. BikeSafe-London aims to reduce casualties by educating motorcyclists and encouraging them to take further training to improve their riding skills and abilities.

What's involved?

Motorcycle and scooter riders are invited to attend a Rider Skills Day. These days combine observed rides, conducted by serving police officers on marked motorcycles, with interactive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advice on keeping riders safe whilst riding their bikes.



Whatever capacity machine you ride we are sure you will get useful advice and information on how to improve your riding skills, get more out of your machine and enjoy your riding more.

Introducing BikeSafe-London

'The best modification you can make to your bike is to improve the skills of its rider.'

Motorcycles and scooters are often sold on their performance and styling but having a top class machine does not automatically make a top class rider.

BikeSafe-London offers a proven formula to help you improve your riding and get more out of your machine.

www.bikesafe-london.co.uk

【오토바이 안전운행 캠페인 안내책자 (출처: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tfl-and-motorcycle-industry-meet-discuss-motorcycling-london)

(www.tfl.gov.uk/corporate/projectsandschemes/roadsandpublicspaces/2291.aspx)

9. 임대자전거 운영방식 개선 및 공공교통과의 통합 추진 (베를린)

- 독일의 임대자전거 제도는 독일 철도 운영회사인 렌트社를 통해 ‘Call a Bike’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방식은 사전에 회원으로 등록한 시민이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 자전거를 임대하는 방식임. 그런데 함부르

크市에서 새롭게 도입한 임대방식이 성공함에 따라 베를린市도 임대자전거 시스템을 함부르크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 기존의 Call a Bike 방식은 독일 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으로,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가 임대자전거 집합장에서 예약되지 않은 파란불 표시등의 자전거를 직접 찾은 다음 자전거에 부착된 전자자물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암호를 받은 뒤 이 암호를 자물쇠에 입력해 자물쇠를 여는 방식임.
 - 반납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큰 교차로 부근에 자전거를 세우고 자전거의 전자 잠금버튼을 누른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용이 끝났음을 알리면 자전거 자물쇠에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방식임.
- 새로운 Call a Bike 임대체계는 지정된 자전거 정류장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짐. 정류장에는 전자임대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자임대기는 市 도시발전부와 독일연방 교통건설부 지원을 받아 태양열에너지로도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짐.
 - 사전 회원 등록절차는 전과 같으며 등록한 회원은 가까운 임대자전거 정류장으로 와 전자임대기에 자신의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회원카드를 넣은 뒤 스크린을 통해 자전거를 선택하고 ‘자전거 열기’를 클릭하면 묶여 있던 자전거가 자동으로 풀어짐. 반납도 가까운 임대자전거 정류장에서 해야 함. 정류장의 빈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잠금버튼만 누르면 됨.
 - 새로운 임대체계에서는 전화 걸기, 암호 기입, 영수증 출력이 필요 없으며 무엇보다 빠른 대여, 간편한 지불방식이 장점임. 새로운 시

시스템에서는 조밀한 임대자전거 정류장 네트워크가 필수조건임. 市는 이를 위해 2011년 여름까지 도심에 속하는 3개 자치구에 80군데의 임대자전거 정류소를 설치하고 1250대의 자전거를 비치할 계획임.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市 전역에 320곳의 정류소를 설치하고 5000대의 자전거를 비치할 예정임.

- 베를린 시민들은 주로 짧은 거리의 출퇴근 시나 가까운 쇼핑센터에 들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함. 대부분 자기 자전거를 이용하지만 자전거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딘가에 신속히 가야 할 경우 임대자전거 시스템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市는 시민과 직장인, 관광객을 위한 더 나은 임대자전거 운영시스템을 위해 독일 철도회사와 함께 공공교통과 임대자전거의 요금제도 통합을 추진 중임. 베를린 공공교통 1년 이용권이나 독일 철도카드 1년 이용권 및 1년 할인권을 소지한 고객에게는 임대자전거 1년 이용권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임.
- 임대자전거 1년 이용권을 구입한 고객은 자전거 대여 후 30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이미 베를린市와 브란덴부르크州의 통합 공공교통 1년 이용권을 사용하는 베를린 근교 통근자에게는 임대자전거 1년 이용권이 9유로(약 1만 4000원)에 제공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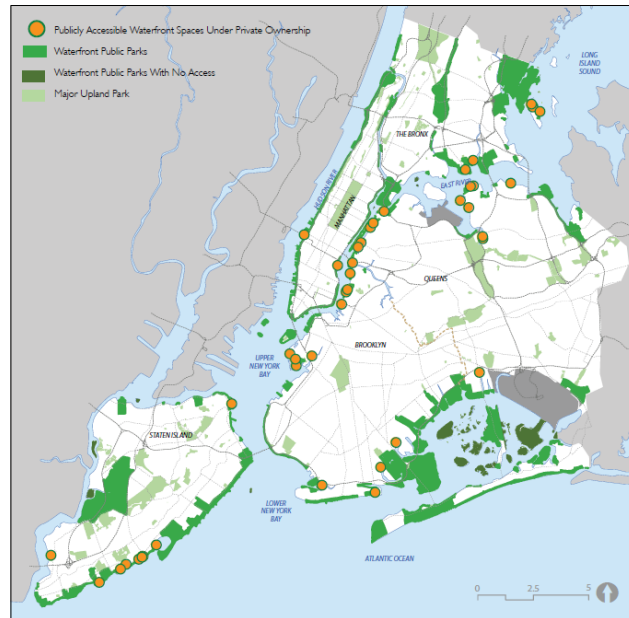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103/nachricht4257.html)

(www.callabike-interaktiv.de/index.php?id=389&f=500)

도시계획 ·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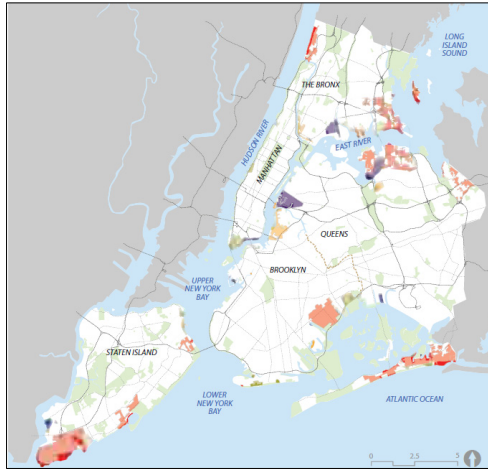
10. 워터프런트 종합계획 ‘비전 2020’ 발표 (뉴욕)

- 뉴욕시는 5개 區 중 4개 區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약 837km에 달하는 해변, 강변, 만(灣), 항구 등 수변공간의 경관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 그동안 수변공간은 고가의 빌라나 아파트가 즐비한 사유지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市는 다양한 스포츠와 자연경관, 항만기능, 해양산업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복합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둬.
- 市 도시계획국은 1992년 워터프런트 종합계획(New York City Comprehensive Waterfront Plan)을 처음으로 수립한 바 있음. 그 후 주요 지점의 워터프런트 계획을 단편적으로 수립해 시행해왔으나 최근 도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 특히 수변공간의 개발정도가 고르지 못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도 있어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음. 18년 만에 다시 수립된 수변공간 종합계획은 다음 8가지 사항을 주요 목표로 함.
 - 시민과 관광객이 공유지와 사유지에 걸쳐 있는 수로와 수변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市는 공공공간과 사유지를 포함한 수변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녹지 및 녹도 조성계획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해 주요 지점 및 區별 계획도를 작성함. 기본적으로 시민이나 방문객이 걸어서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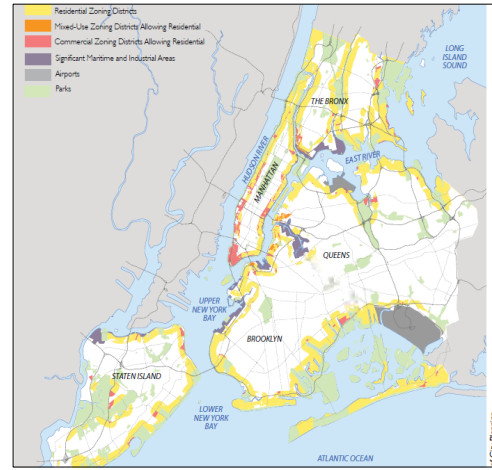


【뉴욕市 워터프런트 접근성 증진 계획도】

- 활기 있는 수변공간 조성 및 근린지역과의 통합적 계획: 1992년 계획에서도 새로운 조닝을 통한 수변공간 활성화를 계획한 바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음. 2011년도 계획에서는 5개 區 전역을 대상으로 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변공간 조성에 초점을 둬.
- 수변공간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 주요 물류시설과 항만 컨테이너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함.
- 수질을 개선하고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 비용효과적인 수질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수처리계획을 추진함.
- 낙후된 수변공간을 개선하고 습지와 해변 생태계 보호: 낙후되었거나 침식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존 자연환경은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보전함.



【1992년 워터프런트 리조닝 계획】



【2011년 워터프런트 리조닝 계획】

- 뉴욕을 둘러싸고 있는 수로를 공공이 적극 활용 : 시민과 관광객, 공공부문이 수로를 활용한 수상교통수단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수로와 수변공간에 대한 규제 및 협조 강화 : 기반시설 관리지침과 항만시설에 대한 디자인지침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 차원의 전략 수립 : 수해 피해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준비함.

(www.nyc.gov/html/dcp/pdf/cwp/vision2020_nyc_cwp.pdf)

11. 재개발되는 고층 호텔과 오피스빌딩 외벽에 디지털 광고 허용 (로스앤젤레스)

○ 개발 허가를 두고 2년 넘게 논의를 계속해 왔던 10억 달러(약 1조 900억 원) 규모의 월셔 그랜드 호텔 재개발 프로젝트가 2011년 3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 통과됨. 또한 월셔 그랜드 호텔이 들어설 구역을 Sign District로 만드는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됨.

- 월셔 그랜드 호텔은 2개 건물로 구성되며 1개는 45층짜리 호텔, 다른 하나는 65층짜리 오피스타워로 건립됨. 두 건물 모두 수천 개의 전구가 건물 외관에 설치되고, 10층까지는 플래시 광고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비춰지게 됨. 이번 프로젝트의 승인은 시의회와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했던, 건물 외벽을 이용해 플래시 사인과 그래픽, Moving Text와 같은 디지털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쿄의 샤톤 빌딩이나 필라델피아의 Cira Center가 그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월셔 그랜드 호텔 에서부터 몇 블록 남쪽에 있는 'LA Live 콤플렉스'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함.

- 반대하는 사람들은 호텔 재개발 자체는 찬성하지만 고층건물을 대형 디지털 전광판화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플래시 광고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고층건물 디지털 광고판이 실업률을 낮추고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또 하나의 쟁점은 앞으로 LA 다운타운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임. 예를 들어 다운타운 북쪽의 그랜드 애비뉴는 미술관과 콘서트홀이 모여 있어 LA's Cultural Center로 만들었고, 피게로아

거리는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이 늘어서 있음. 따라서 시의회가 월셔 그랜드 호텔 주변으로 Sign District를 지정한 것은 다운타운의 미래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시의회가 Sign District를 피게로아 거리를 따라 대형 디지털 전광판이 많은 LA Live 콤플렉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이 프로젝트 개발자인 대한항공은 연구비용 명목으로 40만 달러(약 4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 2개 건물의 상단에 있는 전광판에는 대한항공과 주요 입주업체의 상호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10층 이상부터는 LED 전구를 설치해 꽃이나 화병 같은 비(非)상업광고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할 예정임. 건물 외벽 상층부의 18% 정도에 LED 전구가 6인치(15.24cm) 간격으로 설치되는데 창문과 창문 사이의 외벽에만 설치가 허용됨. 나이키, 코카콜라병과 같은 제품명이나 제품 이미지는 금지됨.

- 시의회는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 25년간 최대 7900만 달러(약 860

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함. 또한 市 소유 컨벤션센터의 공중권(空中權)을 살 수 있도록 허가해 줌으로써 65층짜리 오피스 타워는 조닝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높게 지어질 예정임. 호텔은 2015년, 오피스타워는 2017년에 완공됨.



(www.latimes.com/news/local/la-me-wilshire-grand-20110326-162,0,726584.story?page=2)

(www.latimes.com/news/la-wilshire-grand29-m,0,2379938.story)

(www.latimes.com/news/local/la-me-wilshire-grand-20110330,0,780697.story)

12. 지속가능한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해 ‘아파트 재생 환경 정비사업’ 실시 (일본)

○ 일본 국토교통성은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맨션(우리의 아파트에 해당)의 유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해 맨션 관리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의 활동을 돕고, 종합적인 맨션 재생을 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맨션 재생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일본 전역에 있는 맨션 관리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

작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지역의 상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기존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기존 법인의 기반 강화사업’의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새로운 지역의 상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는 ① 맨션의 재생 관련 전화 상담과 상담 대응 네트워크 구축, ② 전문가를 파견하는 출장 상담 시스템 정비, ③ 맨션 구입자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계획 및 수선적립금 설명 및 홍보, ④ 이와 같은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 육성이 있음.
- 기존 법인의 기반 강화사업에는 맨션 재생을 위해 합의 형성을 추진하는 관리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돕고, 권리자 조정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사업이 포함됨.
- 사업 지원 신청기간은 2011년 4월 23일까지이고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며 5월 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www.mlit.go.jp/report/press/house06_hh_000060.html)